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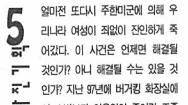
#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3  
도  
시  
사  
례

서울애움터 재생거 눈의 교수학정 평가회, 응선배  
을티 세미나 사건... 오피스포트 소식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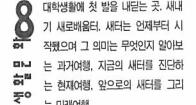
5  
학  
부

얼마전 또다시 주한미군에 의해 우  
리와 어선국민이 전쟁하게 죽  
어갔다. 이 사건은 언제인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 해결될 수는 있을 것  
인가? 지난 6월에 버락 힐러리 행정부에  
서 소련보다 이유없이 죽어간 조종  
원과 함께 탈북한 피해자 가  
족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는데...



6  
학  
부

서대에서 재정운영이 녹색화가 속상한듯 노른 회  
의를 열어 대정부 문제에 대한 토론회, 우리학교 학생 설문  
조사, 10문제 등 등록금을 해ழ습니다.



8  
학  
부

대학생활에 첫 벌을 내리는 것. 새내  
기 세로外婆. 세어는 인재부터 시  
작으로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모  
는 과거여행, 지금의 새터를 진단하  
는 현대여행. 앞으로의 새터를 그리  
는 미래여행.



10  
학  
부

국내외 그리고 세계의 학생운동의 화제로 보여집니다.  
자신 12월 동파관 제4동포특례법, 내용은 무엇  
이고 허즈은 무엇인지 풀어서설입니다.

제756호

2000년 3월 7일(목)



## 양배움터 등록금 투쟁 가속화

서울- 등록금 투쟁 전개 20.21일 재선거 진행

용인- 민주, 분할남부 병행해 추진

**서울** 산모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던 이후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부당한 등록금 인상정책에 맞서었으나, 큰 흐름은 만들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오는 8일(수) 개강준비 청렴화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등록금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 등록금 무정 등 학내 사안을 책임지고 운행에 갈 학생회 건설의 요청에 따라 단과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단대협)은 21. 22일(수) 8일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총선위)는 위원장으로 동행하는 등록금 투쟁에 대해 전면화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용인애움터 총학생회장 이승범군은 「총학회를 활성화 시켜 국가교육재정을 확충하고, BK21 등 신자유주의에 일각한 국가교육정책의 내면 유입을 막아 국가의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수운 기자 soma-j@hanmail.net

### 용인애움터 20대 총학생회장 공판

지난 11월 22일 경기도경 보안과 형사들에게 청 소교과에 투명화되었던 총학생회장 이승범군은 22일(수) 23일(목) 등록금 투쟁에 참여한 가운데 청 소교과에 투명화되었던 총학생회장 이승범군은 경기 지방법원 수원지방청에 청 소교과에 투명화에 성과를 통한 재선거 등장에 대해 일부 지지여부에 대해서도 확연히 입장을 확장했었다.

또한, 이날 학식처들은 등록금 투쟁의 시위를 시작으로 23.11월 전국대학인총연합회 투쟁을 성사시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대·원인애움터 총학생회는 재학생 등록금 투쟁기지에 지난에 따라 반종부·전화·소식지 발송 등을 통해 추진해온 등록금 예정이다.

박수운 기자 soma-j@hanmail.net

민족대회 81주년 맞아 3.1절 개최 예상이다. 이날 많은 단체가 3.1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족자주당 대회장에서 3.1정신계승 민족자주선언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과 일본의 전쟁경쟁, 경제침탈 분

쇄와 국가부안 철폐, 국권반납 분서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주최로 고교필당 앞에서 3.1. 100년째 주주화 정신계승, 한반도 민족의 균일 주한미군 철퇴를 위한 민족대회(민족대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민족의 주제와 대단절을 위한 99통일대회전 10차 범민족대회와 함께 7·7 한

국민대회를 개최되었다.

미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3.1정신계승 민족자주대회(민족자주대회)는 범민련과 전국연합회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민봉주 집회에 모인 시위대가 미로니에 공원

에서 있는 집회에 참가하기로 되어있으나 2시간여 동안 행진을 기록한 전투경험에 의해 행진을 멈췄다.

민족자주당 대회에서는 전국연합 이석래 주

한미군 철수 무정분부정은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였다.

또한 민족대회 자리에서는 전국여성대표자

협의회(전여대협) 임의장 유경숙(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은 「3.1정신을 계승하여 민족

의 주제를 이어가야 하는 날에 외세도 아닌 경

우경찰이 민족자주당의 요구를 받아나서고 있다

며 경찰을 규탄했다.

이날 있었던 행사는 모두 '주한미군 철수'를

기치로 걸고 진행되었으나 하나의 대회로 집중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최호녕 기자 hobhang1083@hanmail.net

### 징계취소판결 교수 반대 목소리 가시화

지난 11월 징계 취소 판결을 받고 강의를 재개한 교수들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 중 신문방송학과의 경우, 9년 당시 징계를 받은 김진호(신왕) 교수는 강의하고 있는 「신문방송론」, 「언론과 언론」 두 수업에 대해 거부운동을 진행하고, 대체강사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학과에 제출한 계획이다.

또한, 단과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단대협)도 짜증을 표시하고 등록금 인상분부와 구 재단 세

축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기행)를 오늘(월) 열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이보령(3)

군은 「9년 재단부정 및 상과물을 지켜내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수운 기자 soma-j@hanmail.net

지난 9.8% 등록금 인상한 학교측과 낙천명단 무시하고 4.13 공천명단 발표한 정치권이 닫은점!

### “일본정부는 사죄하라”

▲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군인을 살해해 왔습니다. 50명 이상은 살해해 보였고, 지치고 기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을 깨끗이 정산을 차리게 한 후 다시 군인을 살해하게 합니다. 그때도 성기나 부리고 도끼와 같은 걸로 굴을 깊게 깨끗이 끝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정서니 일본군 위안부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 정서니 혹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정부와 군은 기업에 의해 전개된 계획하고 조직적인 범죄로 여성은 성노예화를 했을 것입니다. 95년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안한 반성과 존경과 평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평화 국제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에게 국제기금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국의 정부와 인권단체에서는 이 국민기금을 받지 않겠느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때 일본은 일본정부는 이를 강요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물려온 배상금을 받지 못하기 위함이다.

▲ 이어 98년 4월 14일 김태근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 개인에 대한 배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밤을 밟았다. 지난 10년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거나 날이 오나 「일본정부는 사죄하라」를 외치며 투쟁해 온 것은 단호하게 몇십명을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김태근 대통령은 일본 인권인을 초청해 인砧단에서 한국과 일본 교류 역시는 1,500년 넘도록 불행했던 50여년의 과거 때문에 그 관계가 해손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세계 식민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요하고 끔찍한 시대의 지배, 조선 어여버려 몰아내기 전에 역사의 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 지난 삼일절은 전진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400여명 맞이했다. 「전진규모」과 「사죄하라」는 피켓과 듣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이 계셨다. 그 할머니의 눈물은 한민족의 양력을 역사의 눈물이다. 조선의 뜻대로 꽃들 모두가 편에 엮여 머리기 전에

정효진

### 주인을 무시한다

학교

매년 계속되는 무계획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교의 주인,  
학생들을 무시했다.

정서니

부부·비리 정치인들이 출신공천에서  
제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의 주인,  
국민들을 무시했다.



민족자주인  
외대학보







## “중필이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 사립고술 유희의 대상으로 여기는 주현이군 지녀와 재미교포로 의해 전인한 죽임을 당한 조종필씨

지난 2월 19일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하던 한국여성이 미8군 47기갑대 소속 크로스토리 메카시 상병인 이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녀석적 성행위를 강요하다 피해자 김씨가 거부하자 헛김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목을 잘라 죽였다'는 것이 살인방법인 메카시의 전술내용이다. '헛김에 죽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3년 전에 일어난 조종필씨의 살해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97년 4월 1일 이태원에 있는 버거킹 화장실에서 소녀를 보고 있는 조종필(4학년 당시 흥민대학 교 전자공학과 4학년)씨를 아버지가 주현이군인 이경 페터슨(17세)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건 리(18세)가 재미 삼아 칼로 아름군에게 찔러서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발생했다. 재미 삼아 사람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고귀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다. 이 기가 번역 사건은 조종필씨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뜻을 박았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로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종필씨의 어머니 구숙수(58세)씨이다. '중필이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라는 이제 눈도 흘리지 않는 이씨는 최근에 일어난 주현이군화의 안타까움과 분함을 얘기했다.

조종필씨가 영광 평난 허름한 빌라 안에는 그의 양복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물품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었다. 현재까지 대략 4만 명 넘게 서명을 받았다는 서명용지 봉투 끝에 구숙수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측은 미국 측에게 항의나 항변도 못하고 페터슨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그들의 단순한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흉악한 미국인 페터슨은 1년 6월의 형을 받고 98년 8·15특시로 석방되었고 다른 한 명은 1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돌아났다. 이씨는 꿈에도 돈 있는 자란이 범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의 진상규명 재판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이씨는 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23년간 사용해 오던 아들의 유품으로 달랬다. 열방에 있는 사진 하나하나를 보며 아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고 아들이 저급봉에 모아둔 동전들을 손바닥에 부어보기도 하고 아들의 신발과 옷가지를 깨끗이 했던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방정리를 하다 발견한 조씨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정성스레 보여주는 이씨를 보니 자신보다 먼저 각 자식에 대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정리된 조씨의 책상서랍을 또 다시 정리하며 책상 위에 유리가 깨어진 연유를 밀해주었다. 조씨의 아버지가 주인 없는 책상을 보니 아들의 어울한 죽음을 생각나 복받쳐 오르는 분통함을 참지 못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조씨는 아들의 방문을 듣고 아들은 여실히 드러난듯 한국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미국人们도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험한데 김대중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했다. 조종필씨 집을 나오며 외아들을 한 줄 제로 산에 뿐이라 했던 노부부의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았다. '제 2의 조종필'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 힘을 모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뜻이라는 아미나의 부탁을 떠들려본다.

▶ 이유없이 아홉고네나 깥에 끌려 죽임을 당한 아들을 생각하며 받은 서명용지. 살인자 페터슨이 미국으로 출국해버려 이제 보낼 곳이 없어진 서명용지를 보면서 악자의 허무함을 느낀다.



▶ 정리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은 아지럽히는 사람이 있는 조씨의 책상. 조씨 아버지가 주인없는 책상을 보니 익울하고 아들의 죽음을 생각나 책상의 유리를 깨웠다고 한다



## 묻힐 수 없는 죽음



▲ 지난 6월 서울대에서 열린 제10차 범민대회에서 학생들에게 서명받고 있는 이씨 하나된 조국을 염원하며 통일축전에 참가한 청춘들을 보니 아들이 더 그립다.



◀ "중필이가 전투 도중 퇴각해..." 이에 조씨 신발을 아끼던지며 아는데 대신 그 신발을 달았다.

제작

사진부

▼ 이씨는 정성스레 모아놓은 아들의 사진을 보며 조씨 고모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준다



6·7

2000년 3월 7일 7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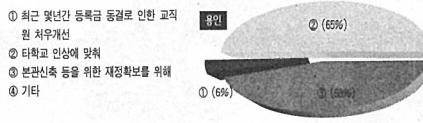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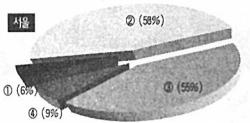
## 주제기획

# 등록금 인상 반대는 대학교육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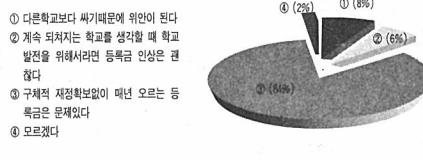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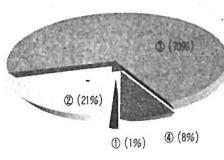
우리학교 학생 의식조사

## 구체적 대안없는 등록금 인상 문제있다(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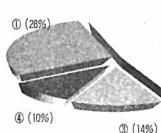
질문1. 우리 학교는 새학기 등록금을 9.8% 인상했습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질문2. 등록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양해을터 총학생회나 단대회에서는 등록금 납입을 수업일수 1/4선까지 내지않는 등록금 납부연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000년 1학기 우리학교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9~10%로 인상되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등록금 납부 거부·연기·거부 철회 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본보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집자

조사대상 : 서울대학교 100명, 양해을터 100명(단, 양해을터 모두 00학번은 제외)

조사방법 : 서면 설문 형식

일시 : 2000년 3월 3일(목) 하루

외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 이) 납부하고 인상폭에 맞춰서 5%와 재정확보를 위해 (56.5%)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재정확보 밖에 없는 등록금 인상은 문제가 있다(77%)고 답했다.

지난 3월(목) 하루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5%, 용인 3%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등록금이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 재정확보 없이 오는 등록금은 문제다(77%), 위치하는 학교마다를 위해 등록금 인상은 괜찮다(13.5%), 타학교에 비해 등록금 인상은 괜찮다(4.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본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42%, 용인 42% 학생만이 알아온 사이 월바른 여론화의 시급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본관신축과 필요성 외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학교 재정문제를 비로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다(서울 41%, 용인 50%), 낙후된 건물 상황을 찾을 때마다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서울 35%)로 나타나 일단 본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신축과 함께 학교의 이미지를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신축과 함께 학교의 이미지를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4.7%) 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신전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등록금 투쟁 등장 여부에 대해서는 난처해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68.5%) '직접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전을, 투쟁은 본 적이 있다(서울 5%, 용인 4%), 모르고 있다(27.5%) 순으로 나타나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약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학부



## 사립대학 재정운영

방문부터 대학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등록금 인상문제가 학교측의 일방적 고지서발송으로 지급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에서는 학생부당 외면하는 등록금인상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등록금납입거부부터 총장집까지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본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42%, 용인 42% 학생만이 알아온 사이 월바른 여론화의 시급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본관신축과 필요성 외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학교 재정문제를 비로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다(서울 41%, 용인 50%), 낙후된 건물 상황을 찾을 때마다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서울 35%)로 나타나 일단 본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신축과 함께 학교의 이미지를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4.7%) 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신전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등록금 투쟁 등장 여부에 대해서는 난처해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68.5%) '직접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전을, 투쟁은 본 적이 있다(서울 5%, 용인 4%), 모르고 있다(27.5%) 순으로 나타나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약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교수는 "IMF지배체제에서도 등록금과 적립금을 계속 늘어났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지출예산은 부풀리고 수입예산은 축소했다"며 한사립대학의 재정악화현상을 비판했다. 또

미지막으로 박교수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등록금인상을 부추기고자 지적했다. 이는 수익자부담논리를 내세우며 사립대학의 요구인 등록금자율화를 허가했다.

## 서울캠퍸스 예비군 대원 신청 안내

2000학년도 1학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등록금 납입후(복학자) 다음과 같이 예비군 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진입신고

가. 대상 : 복학, 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수전공,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자

나. 구비서류 : 예비군 방침보류원서(비상계획관설 바치)

학적변동 신고서(교무처 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과·발행),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및 원적 복학자는 제외)

## 2. 전출신고

가. 대상 : 휴학, 지퇴, 제적, 풀업자(일반 직장대 편성 대상자)

나. 구비서류 : 학적변동 신고서(교무처 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과·발행)

## ※ 기타 문의사항

학생회관 1층 학생처 앞 비상계획관설로 문의 전화번호: 961-4145~6 FAX: 963-7304

2000. 3.

서울캠퍼스 직장 예비군 연대장

## 용인캠퍼스 예비군 대원 신청

2000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신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학생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진입신고

가. 대상 : 복학, 편입, 복수전공자 및 (재)입학자

나. 치첨물 : 등록금 납입영수증, 학적변동 신고서(교과·발급)

복학 : 학적변동 신고서(교과·발급)

졸업 : 주민등록 주소변동지(비상계획관설에 신고할 것)

## 3. 신고장소

· 위치 : 비상계획관설(승차장 및 정보신업관 5110호)

· 대원신고서 접수는 추가등록 마지막 이후 14일까지 받음

· 연락처 : 033-030-4111, 4119

2000. 3.

용인캠퍼스 직장 예비군 연대장

## Internet WEB을 통한 해외학술정보 및 CD-Rom Title 소개와 이용안내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의 일환으로 WEB을 통한 상용 On-line DB 및 전자자료의 구입과 CD-Rom의 확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이를 대비 서비스로 국내 LAN와 연결된 PC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http://webdb.hufs.ac.kr>)에 링크되어 있는 각 서비스에 접속하여 DB를 통하여 원하는 Tado이나 Article의 전문을 색인 등을 검색, 인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DB와 CD-Rom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EBSCOhost

2개의 DB가 있습니다.

(1) Academic Elite  
전 학술분야에 걸친 13,000종에 대한 저널의 최근 10년까지의 전문(全文)과 3,000여권의 색인 및 초록, 700여권의 PDF 원문이 제공됩니다.

(2) Business Source Plus

경제, 경영, 비즈니스, 무역관련 해외학술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

2. PDDG Product Database  
최근 40년간 해외 1,000여개 기관에서 수여된 논문의 원문 및 초록 제공

3. Emerald 전자저널

MCG University Press에서 제공되는 사회과학과 과학관련 분야의 전자저널 제공

4. EBSCO Online

온라인 구독집제작에 대한 On-line 서비스 제공

5. Swets

14,000여종의 저널에 대한 목차정보 및 본 도서관 구독집제작에 대한 원문 제공

6. 신작 구입 CD-Rom Title 목록

대한민국현행법법령, 관례집, 고려사, 팔경대장경, 법해사, 역사와 현실, 삼국사기, 기독교, 종교, 중국사, 한국사, 철학, 철학과 철학, 철학과 철학, 조선왕조실록, 한국학

필자집, 고려순종실록, Encyclopedia Britannica 등 10종

2000. 3.

도서관장

## 추가등록기간 안내

2000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1. 등록기간

2000년 3월 13일(화)부터 2000년 3월 20일(월)까지

## 2. 등록장소

제1교양관 본관 및 지점, 국민행정 본관 및 지점  
하이安康 본관 및 지점(학자금 응시자전 환경)

## 3. 등록금액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학생은 장학증명과 함께 읍행에 납부할 것  
(등록금 납부 통지서에 장학금이 표시된 학생은 제외 - 차액인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할 것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 또는 용인 캠퍼스 총무과 문의내비게이션(043-4043, 4044)

2000. 3.

제무처장



# 줄임말 사용 현황과 문제점

## 끼리끼리 언어, 어디까지 왔나?

'방가', '닭근' 등 PC통신 대화방에서 쓰는 줄임말들이 '한글파의 수수께끼' 이르렀다고 한다. 처음으로 통신을 접하는 사람들은 통신방을 대체로 배워야 할 정도이다. 한글인이 아니니다. HELLO EVERY! (여러분 안녕), HOW OLD R YOU? (몇살이세요?) 등의 외래어도 네티즌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 대학생들이 애인으로 학관(여성회관), 학식(학생식당), 새터(새내기 새로 배움터), 학교(학사경고), 출미(출석 미팅) 등 많은 줄임말들을 쓰고 있다.

PCS의 문어에게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이러한 네티즌들의 줄임말은 학습법의 원칙을 빠르게 깨닫는 음성을 줄이는 경제성과 통찰력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 하지만, '전 설 대단 9999' (저는 서울 시내 대학생 9999번 8년 생입니다), '어와~?' (어서오세요) 등과 같은 말들은 통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변형됐다. 이렇듯, 줄임말은 단어의 경제적인 줄임 수준을 넘어, 의사소통의 단절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집이'라는 말은 서로에게 유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범희(사법·한국)은 대학생들이 쓰는 줄임말들이 서로간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하나만, 모인 사람의 줄임말은 모임의 경우, 모임(집집·집·회사원에게 버릇없이 달빛·과 등을 둘러온다. 비단, 이 경우뿐 아니라 줄임말을 들 때도 단어선택을 가려서 헤아릴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줄임말이 잘못된 뜻을 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박기덕 교수(한교)는 "줄임말은 그 사용 집단내에서 어느정도 정점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부작용 영향을 끼친다"며 줄임말 조언자가 다른 집단과의 안락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즉, 줄임말이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과의 소통을 주며, 결속력은 강화될지 모르나 기olarity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3월 6일 회장 회장 허문숙은 한글정보의 인터뷰에서 "원하지만 언제 경감에 해로운 것이 많았어. 인어 생활도 편리하지만 추구하는 문제는 생기는데" 원칙을 지키는 효율성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줄임말 조언자의 적절한 사용과 일맞은 표현, 그리고 올바른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단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쓰여지는 현실에서 올바른 인어 생활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박준기 기자 marquess@hanmail.net



새터의 피거, 현재, 미래 진다

## 새터의 역사는 내일로 향한다

### 새터의 과거

대학생이되고 처음으로 대학사회를 경험하고 대학문화를 맞볼 수 있는 첫 기회는 아마 새터(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공간을 통해 서 있다. 우리에게 대학에서의 '처음' 이라는 의미를 주는 새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새터는 과 단위, 단과, 나이가 학교라는 유타리티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자리를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대학 사회의 건설과 함께 한다.

60년대에는 지금과 같은 새터의 기반이 아니라, 교내 시설소스, 학년배경, 수강신청 등 대학생생활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습득하는 시간으로 대학을 경험하는 경우로 나눴다. 나름대로 둘다 단장장을 지고 있다. 많은 인원이 함께 잘 공연이 있어서, 이를테면 번거로움으로 함께 가는 것처럼 일어나거나, 새터는 꼬꼬꼬와 달리 과, 단과, 학교를 차례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아울리는 대학 공동체 문화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지향은 창출생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실제 이런 고민으로 단체별로 진행하는 학교에서 기재 전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중앙관을 먼저 찾고 출발한다.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 등이 그렇게 하고 있다.

둘째, 매해 같은 행사로 출발하며 새터의 대한 일꾼들이 고민의 부족하다는 점이다. 새터가 태어나면 할 내용이 있다면 그들을 줄이거나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은 부족하여 예제 새터들이 활동을 하거나 신입생들은 새터준비인이 매번 갈고 볼 꿈을 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세대의 경우 모교지 두 인문계의 족난관을 무대로 옮겨 대학, 충남, 대학화증주를 대학생 주식자 등 다양한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학제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결국 89년 문부내 및 전방입소 교육이 모두 폐지되는 상과를 거두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전방입소에 한 가지 경쟁이면은 처음 대학에 들어오는 새터들이 전방입소 교육기간 동안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 친해지도록 그 그런 혼란을 자신들이 받아야만 하는 가운데 대해 고민하면서 국가의 이메일로기 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대체 생활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새터 자료집) 그어서 그런 전방입소 교육의 창점을 살리면서 내용은 의미있게 꾸밀 수 있는 자리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새터매체 터리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새터의 현재와 미래

새터는 지금까지 받았던 왜곡된 제도 교육에서 탈피, 올바른 역 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배우고, 고민하게 되는, 그야말로 새내기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또한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을 사귀고, 이후 학교생활을 함께 하기 위한 그 첫 만남의 자리이기도 한다.

윤홍은 기자 happyd21@hanmail.net

# 우리말 속의 새터

구단다리—구년복이  
흔히 오래 묵은 물건을 가리켜 구단다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단다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 해 묵은 물건이나 이  
던 일에 오래 종사해서 그가 가지고 있  
는 자식이나 기술이  
넓은 나이가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울비른 우리말은 구년복이 입습니다.

(에) 우리 이제 그 구단다리(x) 웃은 그만  
버리자. → 우리 이제 그 구년복이(o)웃은 그만 버리자.

(하나되는말글살이 우리말연구회)



### 드립니다

신경숙 지음  
문화 지성사 7,500원

#### 온라인으로

#### 열기

《외판 방》, 《깊은 숲속》, 《기자는 7시에 떠나니》 등으로 많은 사람을 빙빙했던 신경숙씨의 새 소설이 나왔다. 특히, 이번 작품집은 신경숙소설의 커다란 히트였던 고현파가 주제로 자작적이 요소가 크게 즐겼다.

《열기방》은 삶의 불안함과 그에 따른 심증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이다. 평범한 일상속에서 어느날 마음 한켠에 비늘처럼 펼리오는 삶의 불안함, 그것은 바로 상실, 결핍, 부족의 감정들이다.

방증 의도적으로 막았지만, 그에 따른 감정과 여론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 드러낸다.

#### 온라인으로 배우는 일본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 하나를 언제까지나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용감한 백성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알고도 너그러이 애써버리는 것과 흐지부지 소지지 않는 한수야 비 노릇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치 뜯어다'라는 김소문님의 '시정'을引用하며 시작하는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문화를 겸주어보면서 비판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쓴 작품이다.

제목은 '당연히'에서 배우는 일본'이지만, 한국사회의 부조와 불합리성을 꼬집으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경제할 것은 경제하는 내용과 다른 작품으로, 저자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돋보이는 책이다. '나리꽃 무궁화, 국민꽃 사쿠라,' '성공대 홀페어자, 간테이 홀페어자' 등 양국의 대표적인 현상을 작각 특유의 사회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었다.

《외판 방》, 《깊은 숲속》, 《기자는 7시에 떠나니》 등으로 많은 사람을 빙빙했던 신경숙씨의 새 소설이 나왔다. 특히, 이번 작품집은 신경숙소설의 커다란 히트였던 고현파가 주제로 자작적이 요소가 크게 즐겼다.

《열기방》은 삶의 불안함과 그에 따른 심증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이다. 평범한 일상속에서 어느날 마음 한켠에 비늘처럼 펼리오는 삶의 불안함, 그것은 바로 상실, 결핍,

부족의 감정들이다.

방증 의도적으로 막았지만, 그에 따른 감정과 여론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 드러낸다.

### 인터넷 나들이

<http://minbyun.jinb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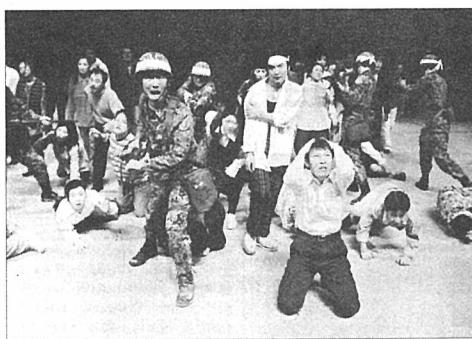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영화

한국전쟁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한반도의 상황과, 전쟁의 결과를 짐작으로하고 고민으로부터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과 세계시작인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살펴본 5부작이다. 영원한 우방국으로 알려져온 미국의 당시 한반도에 대한 정책과 그것을 알아보았던 미국의 당시 한반도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수용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북쪽에서 해방 후 취해온 민족적인 정체 등을 보며 고민인 대중매체나, 고교서를 통해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전시의 고민을 관통하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있는 이상은 어차피나 어렵다. 정치적의 해방관과 비슷한 것이며,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적이 아니라 피를 같이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외대 영상사업단〉 대여문의 961-4605



임철우 작 연극 '봄날' 미리 가보기



동안배움터 세대 중앙공연 보도

## 저항의 시대, 새내기가 희망입니다

"너 들어본 적 있으니?" 우리 할때 할때 살았던 이야기를 이 땅에 남겼지만 그 떨다를 것 없던 삶이었다. 누구나? 그 마루 아래에 깊정 보리알 보다 개방할 M.O 기관총을 펴 부은 이가 그 누구나? 호흡 빠려면 강자보다 더 끄제로 폭탄을 푸어내린 이다. 하늘의 품을 입은 우민족이 경정책으로 표현되는 그 누군가의 충성과 음침을 음울스러운 피카소의 계트리카는 작품이 노련한 아산의 체험들과 비단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1일까지 용인문화원 새내기 세대문화를 처음 맛보게 하는 중장관원은 첫째날에 새내기 새내기의 희망입니다라는 가치로 온양일대에서 있었다. 그 중 새내기들에게 대학문화를 처음 맛보게 하는 중장관원은 첫째날에 새내기 새내기의 희망입니다라는 가치로 온양일대에서 있었다. 그 중 새내기들에게 대학문화를 처음 맛보게 하는 중장관원은 첫째날에 새내기 새내기의 희망입니다라는 가치로 온양일대에서 있었다. 그 중 새내기 새내기의 희망입니다라는 가치로 온양일대에서 있었다. 그 중 새내기 새내기의 희망입니다라는 가치로 온양일대에서 있었다. 그 중 새내기 새내기의 희망입니다라는 가치로 온양일대에서 있었다.

"우리가 수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총과 맹크에 포위된 세 분노와 공포에 떠밀고 당신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서울, 인천, 부산에서 무언하고 있었습니까?" 2001년 지난 5·18 광주 항쟁의 역사와 현장에서 다시 만난 시민의 물분이다.

800여 명의 광주, 지난 5·18 광주 항쟁에서 당시의 광주가 다시 재현된다. 오는 10일(목)부터 12일(금)까지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임철우 작, 김아리 연출의 연극 '봄날'은 지향과 단결, 희생의 이미지인 5·18 광주 항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500여 명의 연극배우들의 두달간의 학습 기간을 통해 완성된 이번 공연은 디큐멘터리와 드라마를 합성시킨 연극적 퍼포먼스다. 거기에 함께 한 명, 미술과 인류가 학자진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선보인다.

5월 항쟁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 병사의 경험으로 진행되는 이 작품은 실수 나이 지난 지금까지도 좌핵감과 피해의식에 고개를 끄고 있는 병사의 기억을 통해 당시 열흘간의 견인차별 상황을 되살아낸다. 작품은 광주를 찾은 10여년간 중인들 증언을 찾아 이 작품에 매력을 더하는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작품을 완성했다. 광주 항쟁 당시 전남대 영문학과 4학년 유희준이었던 그는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메모와 시사에 배포된 전단, 항쟁 전후 저방신문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의 사실성을 살렸다고 한다.

작품에서는 한정호(조)의 극단적 폭력이 물고는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냈다. 또, 폐쇄된 병행생활에서의 억압과 고통스러운 혼란이 배태시킨 범들의 행정적인 중요성과 폭력성과 주님마음 및 솔직함 등 반면에는 도상 및 광장 집단 밤표, 최후의 날 도장에서의 진압작전 등의 상황들, 그리고 당시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 분노, 시민군 및 지식인의 활동, 거제자자이 또다른 면에서는 피해자기도 한 공수부대 병사들의 내면적 혼란 등등의 문제들도 그려진다.

거제자인 두명의 정직 대통령이 '이제는 화해의 시대'라고 용서를 강요(?) 하지만 그들은 광주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디가 그들을 용서하고 악수도 해버렸지만, 광주 시민들이 그들을 용서할 기회도 없었다.

디가 사람에 버렸지만, 광주 시민들과의 용서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괴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 연극은 그 고리를 끌기 위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5·18 우리에게 남겨 준 의의를 다시 들려보고 이를테마 전장의 화려와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우리가 준 비해야 할, 진정한 자기 반성과 친화라는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 문화 단신

### 서울

#### 오는 9일, 서대 시네마파크 열려

오는 9일(목) 오후 5시 30분 대학원소극장에서 '서대 시네마파크'가 열린다. '서대 시네마파크'는 서당마을에서 매주 어느 영화제의 이름이다. 그 외 상영으로서 '사무교파크'라는 미국애너하이선으로 90년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작품이다.

"기존의 매니아 위한 영화제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라고 전하는 서대 시네마파크 팀장 이진우(서당·스칸디나비아·유학)군은 영화를 통한 그 나라의 문화, 사회를 함께 읽을 수 있는 외대민의 특성을 살린 영화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그 비법을 전 했다.

#### 앵글스 2회 사진전 열려

서울隃미터 사진전 앵글스의 스물 두 번째 신인전이 지난 2월(목)부터 4월(토)일까지 삼일간 미니르바 전시실에서 열렸다. 28년 학생들의 데뷔전인 이번 사진전은 10명의 작가들의 사진 32점이 전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주제전이 아니라 작가 개인의 개성과 관심분야를 살린 작품을 전시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회와 관련, 회장 이승현(동양·미술어 3) 교수는 "동양화 홍보를 겸한 이번 행사였는데 전시실이 외진곳에 있어서 학우들의 관심이 저조했다. 또, 전시실의 조명이 부족해 각 작품을 둘보기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배움터의 전시실 부족과 공간의 불편함을 전하기도 했다.



## 동안내 한국

#### 아시아 감독 3인전

- 차이밍량(대만), 이사이고(일본), 홍상수(한국)  
한국과 대만, 일본 이시아 3국 각 나라의 현실을 성직한 영화로 그레이트 니름의 인정받고 있는 홍상수, 차이밍량, 이사이고 3명의 감독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영화를 보는 것과 동시에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 영화를 이야기 해보는 자리, 또한 '일상과 이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독과 팬들이 함께 하는 포럼도 진행된다.

홍상수: '네자기 우울에 빠진날'(1996)

장원도의 힘(1998)

차이밍량: '청소년 나태'(1992)

하루(1997)

구멍(1998)

이사이고: 엔돌 더스트(1994)

꿈의 미로(1995)

빈집인간(1998)

서풀(1991)

시간·3월 10일(금)~12일(일)

장소: 이트신세계(73·89)

관람료: 1회 5000원

포럼참가: 당일 영화관련 티켓을 1장 이상 소지한 관객들은 당일 포함에 모두 입장 가능

## 대인이 외대인에게

### 서울 배움터 신방과 보도사진학회

신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는 매체이다. 신문방송과 보도 사진학회는 이러한 사전의 강렬한 힘에 심취한 선배님들을 위해 1985년에 창립되었다.



이 남주  
(사회·신방 3)

가장 그리고 속보전과 기획전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전시하고 있다. 카메라나 필름 그 외 사진 기기 등 많은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지만 학회원들 간의 예상과 시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28회의 전시회를 무사히 치렀다. 또 보도사진학회는 학회원들 간의 예상과 예상 덕분에 '보사기획'이라는 속성을 쏙드게 하면서 전시회에 대한 열정으로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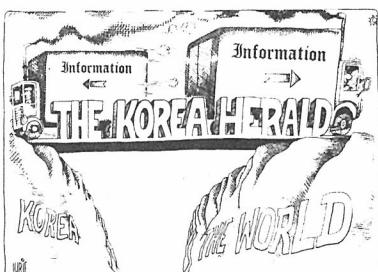
보도사진학회는 지금까지 14회의 정기전과 실현전 그리고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해온 바 있다. 이 시대를 이끌고자하는 주제적 청년으로서의 새로운 사고와 우리가 사랑으로 만난 던 우리 주변의 소의 받는 이웃들과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가슴에 떠오른 것이다. 이 시대를 이끌고자하는 청년들은 화려한 미술관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청년으로서의 주제로 만난다.

시장구조의 조그만한 패턴을 끌어안고 살았던 우리는 이마니와 IMF 구조조정으로 서면을 떠도는 이자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짓던 할아버지, 모두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알고 살았던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적도 많았다. 우리들은 우리가 늘어나며 대학생활을 보내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호흡하며 풀은 포토 보도사진학회는 5월의 실험전과 11월의 정

<http://www.koreaherald.co.kr>

<http://www.naeway.co.kr>

## “세계로 통하는 창”



코리아헤럴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그리고 오락분야의 국내외 최신뉴스 뿐 아니라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Los Angeles Times, The Japan Times, The Independent of Britain의 뉴스들도 동점계약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Herald

• 구독신청 TEL 727-0404 • 광고문의 727-0333

## “내일이 보이는 신문”



- 런처타임 종합경제지 -

빠른정보로 한발앞서 나갑니다.

돈 만드는 길이 보입니다.

디지털, 벤처정보가 한발앞서 나갑니다.

내외경제신문  
[www.newsey.co.kr](http://www.newsey.co.kr)

• 구독신청 TEL 727-0404 • 광고문의 727-0333

## 학술 보도

'4·13 총선 보도와 신문개혁 토론회' 민언련,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주최로 열려

한국 기독교교협의회(KNC)와 민주언론문화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4·13총선 보도와 신문개혁 토론회'가 지난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4·13 총선 보도의 문제점을 짚감하고 이를 통해 2000년 신문개혁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승우(전체대 신문과) 교수와의 회화로 전 행됐다.

△ '총선 보도와 신문개혁'의 발제로 김동민(한국일보) 대신 김병호(교수)는 경향신문이 편집국장을 직선으로 뽑은 예를 들면서 다른 언론들은 신당의 출현과 더불어 지역주의 의료 조합화에 있는 것과는 반대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다른 '신문과' 시사의 재벌 소유구조를 토의하는 '성향으로의 개혁이 전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향신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바른 언론으로서 승부수를 끄운 것'이라고 말했다.

△ '2000년 신문개혁 구체적 방안'의 두 번째 발제로 김시경(성명과 대신과 교수)과 교수는 소유구조의 개혁, 편집권과 독립, 공정한 신문인정과 정립과 그 외에도 일상적 취재 환경의 정화 등 다양한 개선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신문과'에 관한 논의는 무성한 반면 그를 위한 실천은 전무하다며 개혁은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기  
리사

## 개념(Genome)

생물이 생활기능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의 염색체.

이 염색체 속에는 생물의 유전형질을 나타내는 모든 유전정보가 들어있다. 세포과학으로의 종(種)에 따라서 다양한 속자로 이루어지는 1 쌍의 염색체를 개념이라 하며 1개는 죽에는 상대(相對)염색체가 합류되어 있다.

개놈 속의 1개 염색체 또는 염색체의 일부만 상상하도록 생활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1개의 개놈을 A로 표시하면 일반적으로 예상의 세포는 2개의 개놈을 함유하므로 AA. 생식세포는 1개의 개놈을 함유하므로 A로 표시된다.

1920년에 H.温情리가 최초로 개놈 개념을 확립했으며 최근 미생물유전학이나 분자유전학의 발전과 함께 개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주최 재외동포문제 학술회의

## 재외동포의 지위향상에 대한 제도마련 시급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는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대체의 거소 신고증을 받을 때는 재외동포들은 한정으로 2년간 재입국 허가 없이 주류세금을 출입국 할 수 있게 되는 등 내국인처럼 국세를 오갈 수 있게 됐다. 또 국세 부동산을 취득·처분하거나 예금 거래 및 금융기관 이용시 내국인과 사실상 같은 권리로 갖게 되고 30일 이상 체류시 유통세를 혜택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러나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 무국적 재입 풍포의 지위향상에 대해 제도적 정침이 미비하며 일부 개선책으로 불구·정부가 외교문제 등을 25만 중국과 러시아연방 등을 제외해 대체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외교관증명연구센터에서는 재외동포문제를 다른 국제 학술회에 개최했다. -편집자

지난달 29일 서울아울렛 국제관 온라인에서는 재외동포학회의 후원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소수민족정책과 국제교포정책'에 관한 재외동포문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2층회의실로 나뉘어 진행된 이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학자 네 명의 개연성으로 출연해 각자 주제별로 25분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먼저 신 중국 민족정책에 대해 발제한 허우복(중국 중앙민족대학 민족학과) 교수는 '신 중국 성립 후, 중국 국가 전략적으로 민족문제를 단결정책, 민족주의자치정책, 소수민족간부 배양정책, 소수민족·증족문화·종족정책·소수민족 종교정책·자치정책 등 민족정책을 조화시키고 민족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민족정책은 중국의 민족이라는 기본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제정되어 있다.

개념 속의 1개 염색체 또는 염색체의 일부만 상상하도록 생활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1개의 개놈을 A로 표시하면 일반적으로 예상의 세포는 2개의 개놈을 함유하므로 AA. 생식세포는 1개의 개놈을 함유하므로 A로 표시된다.

1920년에 H.温情리가 최초로 개놈

개념을 확립했으며 최근 미생물유

전학이나 분자유전학의 발전과 함께

개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회시키는 것이다'며 '민족문제는 각 민족 인민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다민족인 사회안정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계획개발신기기의 중국 조선족은 새로운 문제와 기회를 접하고 있으며 그들은 민족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경우 1991년 말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주권국가가 150여개로 늘어났고 러시아 정체언어인 몽olian이 100여가지 이러한 다른 공화국이나 자치구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지 토착민족의 민족주의의 경향으로 인해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민족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1984년 러시아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우선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고 그들의 위치와 권리와 향상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1991년 11월에 소련은 러시아연방 국가기구에서 이에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니콜라이 부기야(리시아 연방공화국 연방 및 민족문제부 국장)에서는 '러시아연방과 다른 국가들(독립연합 소속 국가들, 러시아 국가) 사이의 민족주의의 부조화'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연방과 협력, 평화, 협력으로의 분분을 둔 국가간 비교정부(구유엔신사 회) '원칙'과 함께 협조,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체결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인들의 민족문제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간 평화와 협력, 평화, 협력으로의 협력과 협조를 촉진할 것을 제시했다.

1937년 가을에는 러시아 고려인 약 18만명이 연해주로부터 부단하게 강강성주를 했다. 그 국정과 민족문제에 있어서 경지적으로 존재하는 기본국정을 근거로 하여 민족평등과 단결을 실현시키고,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제정되어 소수민족발전과 민족관계를 조

한국 역시 50만명이라는 재력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경찰장부와 지방경찰, 한국정부, 국경기관에서는 노력하는데 민간인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학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려인을 포함한 많은 소수민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94년에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 연방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뒤 이동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앓을게 힘들었던 사람들은 복원하는 법 제정을 하는 등 복권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연해주 지방에 고려인과 집단으로 살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하기도 했다. 실제로,



어 문헌'에 관한 결정사항을 수용함으로 인해 폐의 도입문제와 고려인 이동단체의 학성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 리 버기는 "러시아 일련의 문제들이

온 러시아 고려인의 국제협력 양으로 상정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러시아 고려인을 다른 민족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

며 대북민족의 정부, 비장관단체와 대학들이

한국의 다양한 조직과 운동단체와 같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재외동포법 시행후에도 계속되는 소수민족차

별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열린 만민통문회는

중국, 러시아 등에 퍼져있는 조선족 등포들과

도 칠본문제를 거론해 내내 뜨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런 기회를 시작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지위향상에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소윤미 기자 unee15@hanmail.net

## 옆집 강아지 눈치?

…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쪽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부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우리 크로나를자 '내 나라 내집에' 가는데 옆집 강아지 눈치는 왜보나?

(표)

… 지난 1월 26일 태계한 조국통일법 민족연합 남측부로 김양무 상임부의장의 미팅이 양천전국과 유가족 그리고 명의 수원원에 대한 방북신청이 불허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 크로나를자 '정부'이 북한에 이용 통일의 물고 트는 것이고, 민간인이 기관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 차이는... 든?

(념)

… 국민들이 지문날인 거부투쟁도 벌이며 웰세남비니, 국민들 오리가기 시간 날비니 하며 반대했건만... 결국, 세로나온 플라스틱 주민카드에 대한 경제적자리 소리가 높다. 소모품 입장의 후속에서부터 불량률 30% 발생, 유사 위조증명 속수무책...



이에 크로나를자 한미 '한민한 국민의 소리' 인터뷰에 뒤로 넘겨져도 코가 깨진다는 명언이 있지 않아!"

(효)

… 여전히 여의도에 민주국민당(가칭)이 새로 신경개업 했는데, 차세에는 찬밥, 삼발, 고려족 등이 있다.

이에 우리 크로나를자 식당을 나오며, '여의도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식당은 언제 나오려나...'

(총)

… 지난 5일 조선일보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8면 특집호를 내는 등 기념 행사가 한창이었는데, 한편 조선일보를 보내버리는 사람들의 모임은 또다른 기념행사를 벌이며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펼쳤다고 이를 보며 우리 크로나를자 한미다. '생일 날 조선일보는 풀이군'

(88)

… 앞서는 동아리가 세상을 바꾼다. KUSA를 가자! 내 손안에 더 큰 KUSA! 학생회관 4층에 있습니다.

(KUSA)

… '하늘시랑'에서 00번짜리 새내기를 찾을 준비가 다 됐어요. 행·캐리 글라디움을 하는 사람은 세력왕, 얼굴왕, 성격왕 한미다)에 둘러싸여 활동하는 청년들은 저마다 청년회장을 희망하고 있다. 고려인의 문화와 차이와 정신적 부흥을 위한 운동에 힘쓴다.

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발견해 주고 있는가?

밀도와 삶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그를 통해 한미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 한미에 관한 토론 및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연구문화를 출판하는 사업과 3·1 운동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고려인의 문화와 차이와 정신적 부흥을 위한 운동에 힘쓴다.

외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세계 문화 및 예술, 문명, 역사교류를 통해

깊은 인복을 걸었으면 한다.

소윤미 기자 unee15@hanmail.net

… 알시기는 동아리가 세상을 바꾼다. KUSA를 가자!

(KUSA)

… 알시기는 동아리와 학생회관 4층에 있습니다. 학생회관 302호로 오세요. 구내진화는 4421입니다.

(하늘시랑)

… 외비기다는 통기타 동아리입니다. 왕산고의 음악동아리입니다. 학생회관 307호에서 오세요.

세내기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께요.

(외비기)

… 그림은 그리고 싶으세요? 혹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림 이서기 문을 두드리세요. 하얀공간에서 당신을 애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드릴 곳은 학생회관 210호입니다.

(하얀공간)

… 뱃놀하면 새내기,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민족연합에 빛요술! 학생회관 311호입니다.

(빛요술)

## 왕 산 골

□ 알립니다

· 긴급속보!! 용인·모현 지역에서 이질발생!

학생 어려분께서는 저수수를 드시지 마시고, 드시더라도 꼭

이 드시길 권하여 긴급적 파는 생수나 물로수수를 드세요.

(이질전염막음자)

· 양주시 고최고 장 나가는 풍물매! 종암풍물 풍양에서 함께 할 가족을 찾고 있어요. 자, 학생회관 지하로 오세요.

(한일)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로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166 팩스 : 961-4169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330-4112, 4580

## 이 문 벌

▣ 찾습니다

· 지난 2월 28일(월) 6시즌 4층 열탕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사 뒤 걸어놓은 가방은 본분이었습니다. 자주 찾는 갈색 이스트 키이고요. 가방안에는 여러가지 영어책이 들어 있습니다. 연락처 : 010-305-6305 정필진.

(기방 분실한 사람)

· 2월 24일 열탕실에서 자주 찾는 워크맨 가방이 분실된 분! 워크맨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 아니에요. 제발 둘러주세요. 연락처는 961-4458입니다.

(워크맨 분실한 사람)





